

한자녀 가정의 후속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가족 환경적 특성과 유아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중심으로*

이진화¹⁾ 김정은²⁾ 임원신³⁾

요약

본 연구는 한자녀 가정의 후속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지위, 부부관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아버지의 양육참여 등의 가족환경 변인과 유아의 수면, 식습관 등 유아의 일상생활습관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가 후속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력을 경로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토대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고,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χ^2 검증과 TLI, CFI, RMSEA 적합도 지수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제공한 5차년도 한국아동패널 전체 대상 중에서 유아기 한 자녀를 둔 429가정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자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부부관계는 한자녀 가정의 후속출산계획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한자녀 가정의 후속출산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부부관계를 매개로 후속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가계소득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주기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가족환경변인, 유아기본생활습관(수면습관, 식습관), 후속출산계획

* 본 연구는 2014년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수정·보완하였음.

1)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2)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부교수
3)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I. 서론

2013년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33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도 초저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장한나·이명석, 2013). 이와 같은 낮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여러 관점에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김형준, 2008; 김홍배·최준석·오동훈, 2008; 신경아, 2010; 신혜원·최평섭·김의준, 2009; 염명배·김경미, 2011; 이미란, 2010; 이정원, 2009; 정성호, 2010; 차승은, 2008). 이들 연구들은 초저출산율의 원인을 다양한 경로로 분석하고, 현실적 논의를 통해 출산율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 가운데 최근에는 한자녀 가정의 후속 출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기혼부부들이 첫 번째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선택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반면에 둘째 자녀부터는 사회경제적 능력, 가족적 지원, 자녀에 대한 질적 양육의 선호 등의 이유로 필수이기보다는 선택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박수미, 2008; 이정원, 2009). 이와 같은 출산 현상은 여성의 개인적 특성, 사회경제적인 출산 및 양육지원환경, 자녀에 대한 가치관 등 여러 요인들이 결합되어 나타난 결과로 현재 우리나라는 형제나 자매 없는 외동아의 비율이 매년 상승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자녀 가정의 후속출산을 설명하는 변인으로는 가족 내 변인인 부부관계특성, 부부의 자녀에 대한 태도 및 가치관, 양육관련변인 등과 사회정책적 변인인 육아지원정책, 취업모의 근로기간 및 형태, 유아교육기관 이용 등이 선행연구들에서 관련 변인으로 제시되었다(김미정·정계숙·박희경, 2011; 이진화·조하나·최혜윤, 2012; 임현주·이대균, 2013). 이들 변인들은 각각의 후속출산과의 관계를 각 변인과의 관련성으로 설명하거나 경로분석을 통해 방향성을 살펴보기도 하였다.

후속출산을 계획하는데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상황적 맥락은 출산을 결정하는 어머니를 둘러싸고 있는 가족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 가족변인은 부부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 환경적 변인과 자녀인 유아변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후속출산과 관련한 가족 환경특성 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본 선행연구 결과를 정리해 보면, 가족의 경제적 수준, 부부관계,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관련 변인 등이 포함된다(고광만·김소아, 2014; 이정원, 2009; 이진화 외, 2012; 임현주·이대균, 2013; 장한나·이명석, 2013; Matysiak, 2009).

자녀의 후속출산계획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고려되는 가족환경적 특성은 가계 경제 수준이다. 일련의 선행연구들은 가계의 월평균소득과 같은 가계 경제 수준이 후속출산에 영향을 주는 변인임을 보여주고 있다(임현주·이대균, 2013; 장한나·이명석, 2013;

정성호, 2010). 가계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후속출산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지만, 이진화 외(2012)의 연구에서는 후속출산과 가계 월 평균 소득과는 무관하다는 결과도 있다. 또한 가계 경제수준은 부부관계나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aczynski, 2006). 반면 또 다른 연구에서는 가계의 경제수준 그 자체가 부부관계나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경제수준을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 영향력은 달라질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권지성, 2013). 일례로 경제적 압박을 받는 저소득층 가족들이라고 해서 부부친밀성이 모두 낮은 것은 아니다. 저소득층 가족 내에서도 경제압박을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 부부 간 친밀성의 정도가 각기 다르고, 갈등의 정도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현경자·박선희, 2012).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가계 경제수준은 출산계획에 직접적으로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부부관계특성, 양육참여 등을 통해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따라서 가계경제 수준에 대한 일치되지 않은 결과를 다른 가족 변인들과의 상호작용효과를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결혼만족도, 부부갈등과 같은 부부특성은 후속출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인이다(고광만·김소아, 2014; 송영주·이주옥·김춘경, 2011; 임현주·이대균·최항준, 2011). 이들 연구에서는 부부 간의 갈등이 높아지면 후속출산계획이나 의도가 낮아지는 반면에 결혼만족도가 높고, 모의 우울정도가 감소할수록 자녀수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여러 연구에서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갈등이 낮을수록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는 높아진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Feldman, 2000; Harris & Morgan, 1991). 더불어 아버지의 적극적인 양육참여는 어머니의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높임으로써(고정숙·김갑숙, 2000) 후속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한다. 한편 이러한 부부관계 특성이 자녀의 후속출산에 미치는 영향력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관계 특성이 더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광만·김소아, 2014)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관계에 초점을 두었다.

한편 자녀 양육에 있어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행태는 후속출산과 상관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여러 연구(임현주·이대균, 2013; Lee, Kim, & Lee, 2012)에서 어머니의 양육에 대한 태도 및 가치관이 자녀수와 후속출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자녀 양육 부담감은 양육스트레스로 나타나서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를 지각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후속출산을 계획하는 집단이 감소한다는 직접적인 관련성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으면 결혼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고 부부갈등이 심화됨으로써 자녀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어

자녀수 혹은 후속출산에 대한 기대감까지 낮아진다는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양육스트레스가 후속출산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력도 제시하고 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 어머니의 양육부담감 외에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어머니의 후속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김종훈·양소영·성지현, 2013; 송영주 외, 2011; 임현주·이대균, 2013; 임현주, 2013).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중요한 이유로는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가족 내 아버지의 역할이 변화(강란혜, 2000; 권혜진, 2010; 김정원·김유정, 2007; 남정은·정정희, 2013)되어 가고 있는 오늘날 아버지의 적극적인 양육참여와 효과적인 양육행동은 가족 내 아버지의 역할과 위상도 강화시켜 주어 가족유대감과 응집력을 증진시키는데 일조하기 때문이다(고정숙·김갑숙, 2000). 이와 같은 아버지의 적극적인 양육참여는 어머니의 양육 부담감을 완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부부관계를 원만하게 하여 자녀수와 후속출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정미라·홍소영·박수경, 2013). 또한 아버지의 적극적인 양육참여는 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교육적 성취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amb, 2004; Sénéchal & LeFevre, 2002)는 점을 고려해볼 때,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유아의 건강한 습관형성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이를 통해 후속출산에 긍정적 태도를 갖게 함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족환경 특성인 부모의 가계경제수준, 부부관계특성,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행태는 후속출산을 계획하는데 유의미한 변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각각의 변인들이 어떠한 경로로 상호작용하여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필요하다. 그 이유로는 우선 고희만과 김소아(2014)의 지적에서도 알 수 있듯이 후속출산에 대한 주체가 어머니이므로 어머니가 각각의 변인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 가는 중요하다. 특히 양육지원의 측면에서 배우자인 남편의 양육참여는 상대적인 입장에 있는 어머니의 인식이 중요하다. 또한 일련의 선행연구들에서 가족환경적 변인들의 후속출산 영향력이 연구대상에 따라 그 정도와 의미가 다르게 나타난 바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환경 변인의 서로 간의 상호작용 영향에 따라 후속출산계획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점들을 고려하여 후속출산계획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환경 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선행연구 결과에서 후속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환경적 변인의 역할은 각각의 연구에서 연구대상, 주요 관련 변인 등에 따라 그 결과들이 일치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이는 가족환경적 변인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후속출산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각 변인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으로 예측된다. 따

라서 가족환경적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후속출산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가족 내 유아의 특성 또한 후속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후속출산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해야 하는 유아관련 변인은 유아의 일상생활 즉 기본생활습관이다. 유아의 기본생활습관은 부모의 양육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부모-자녀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자녀의 일상생활 특성은 어머니의 육아 및 양육 경험에 부정적 혹은 긍정적 경험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여(김미숙·민시인, 2012) 유아는 자신에게 주어지는 매일을 시간과 공간이라는 틀 속에서 자신만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이기숙·정미라·김현정, 2006). 유아들이 경험하는 하루 일과는 유아와 부모가 속한 사회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유아들은 부모들이 제공하는 일상생활을 통해 사회의 가치, 신념, 실제 등을 학습하고 사회화될 뿐 아니라(이기숙·손수연, 2012) 기본적인 생활습관을 형성하게 된다. 일례로, 부모의 스트레스는 부모의 양육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부정적 양육태도는 유아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Anthony et al., 2005).

또한 비슷한 맥락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유아의 기본생활습관 형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이미숙·이영애, 2014) 어머니가 자녀에게 긍정적으로 반응할수록 유아의 기본생활습관이 잘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은영, 2013). ‘삼세 지습 지우팔십’이라는 속담처럼 부모의 애정적이고 지지적인 양육 속에 형성되어지는 유아의 좋은 습관은 유아의 이후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더불어 자녀 양육에 대한 자신감과 자부심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자녀의 편안한 특성 혹은 안정된 특성으로 인한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감 감소는 후속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례로, 자녀의 부정적 정서가 낮을 경우 후속 출산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갖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최항준, 2015). 비슷한 맥락에서 자녀의 유아의 불규칙적 식습관이나 수면습관 등과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상생활은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떨어뜨림으로써 후속출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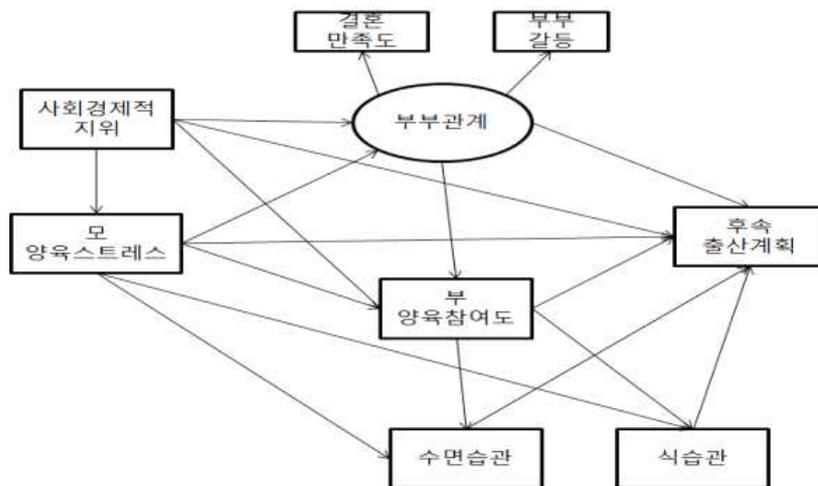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머니의 후속출산계획 혹은 의도는 단순히 하나의 변인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변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지고 특히 어머니를 둘러싼 1차 환경인 가족변인은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기대되므로 가족환경적 특성과 유아의 일상생활 특성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자녀 가정의 후속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사회경제적 계층, 부부특성,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행동 등의 가족환경 변인과 유아의 수

면, 식습관 등 유아의 일상생활습관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중심으로 후속출산 계획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위와 같은 연구 목적 하에 제기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한자녀 가정의 가족환경 변인과 유아의 기본생활습관은 어머니의 후속출산계획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한자녀 가정 어머니의 후속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환경 변인과 유아의 기본생활습관의 직간접 효과는 어떠한가?

이를 검증하기 위한 설정한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자녀 가정의 후속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환경 변인과 유아 개

인 변인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서,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제공한 5차년도 한국 아동 패널 전체 대상 중에서 유아기 한 자녀 가정 429 가정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결측치가 있는 사례를 제외하여 최종 416 가정을 최종 대상으로 하였다. 한자녀 가정 유아의 평균 연령은 51.79($SD=1.30$)개월이었고, 이들의 성별은 남아 53.4%, 여아 46.6%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자녀 가정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34.78($SD=3.99$)세였고, 이 중 취업모는 5%, 비취업모는 95%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자녀 가정 아버지의 평균 연령은 37.16($SD=4.38$)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경제수준을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권자 0.2%, 차상위계층 7.5%, 일반 92.3%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가. 사회경제적 계층

한자녀 가정의 가계경제소득 수준 변인은 사회경제적 계층으로 구분하였다. 사회경제적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여부를 기초로 측정하였다. 이것은 각 가구별 실질적인 소득수준에 준하여 구분되기 때문에 가족의 경제상황을 보다 명확히 측정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계층은 1, 차상위계층은 2, 일반계층은 3으로 코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나. 부부관계

한자녀 가정의 부부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어머니가 보고한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을 측정하였다. 본 모형에서는 부부관계를 잠재변인으로,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을 측정변인으로 설정하였다. 결혼만족도는 어머니가 지각하는 결혼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총 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2이다.

부부갈등은 어머니가 지각하는 결혼생활에서의 갈등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총 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갈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1이다.

다. 양육스트레스

한자녀 가정 어머니가 지각하는 자녀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어머니가 보고한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였다. 총 11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9이다.

라.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한자녀 가정 아버지의 자녀양육에 참여도를 측정하기 위해 어머니가 보고한 아버지의 자녀 양육참여도를 측정하였다. 총 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참여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79이다.

마. 유아의 기본생활습관

한자녀 가정의 기본생활습관을 측정하기 위해 어머니가 보고한 유아의 숙면여부와 유아의 식습관을 측정하였다. 유아의 숙면여부는 유아가 밤에 깨지 않고 충분히 숙면을 취하는지를 묻는 문항으로서, 총 1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깨지 않고 잘 잔다(1)에서 자주 깬다(2)의 2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이 문항은 역코딩하여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가 숙면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아의 식습관은 유아가 바람직한 식습관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총 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바람직한 식습관을 가졌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72이다.

바. 후속출산계획

한자녀 가정의 후속출산계획은 한가정 어머니가 이후에 출산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묻는 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래의 범주는 계획이 있다, 계획이 없다, 잘 모르겠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후속 출산계획의 의도와 확신의 정도를 묻는 것으로 있다(2), 없다와 모르겠다(1)의 2점 리커트 척도로 활용하였다.

3. 자료분석

한자녀 가정의 사회경제적 계층, 부부관계, 부모의 양육관련 변인, 유아의 일상생활 습관, 어머니의 후속출산계획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또한 측정도구들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주요 연구변인들의 특성 및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였다.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을 비교하기 위해 카이제곱검증을 실시하였다. 각 모형의 적합도와 변인 간 경로계수를 산출하였고 이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χ^2 검증과 적합도 지수를 이용하였다. 여러 적합도 지수 중에서 TLI (Tucker-Lewis Index), NFI(Normed Fit Index)와 RMSEA(Root Mean Square Error Approximation)를 사용하였다. 이상의 자료분석을 위해 SPSS 18.0과 AMOS 18.0을 사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연구변인들의 기술통계치와 상관관계

연구변인의 평균, 표준편차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한자녀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관련하여 평균이 2.92($SD=.26$)로 나타났고, 빈도를 살펴보면 차상위계층 이하가 7.7%를 차지하고 대부분(92.3%)이 중산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자녀 가정 어머니가 지각하는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의 평균은 각각 5점 만점에 3.65($SD=.75$)와 2.19($SD=.75$)로서 보통이상의 결혼만족도와 보통이하의 부부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자녀 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5점 만점에 2.64($SD=.66$)으로서 보통 이하의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자녀 가정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는 5점 만점에 3.55($SD=.77$)로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자녀 가정 유아의 수면습관은 2점 만점에 1.84($SD=.36$)으로서 전반적으로 숙면을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자녀 가정 유아의 식습관은 5점 만점에 3.25($SD=.58$)로서 보통 수준의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각 변수의 왜도와 첨도를 살펴본 결과 사회경제적 지위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의 절댓값이 2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구조모형 검증을 위한 정규분포성의

기본가정을 만족시켰다.

연구변인들 간의 관련성에 대한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가족환경 변인 중 사회경제적 배경은 후속출산계획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r=.15, p<.001$)으로 나타난 반면, 다른 가족환경 변인이나 유아 변인과는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는 부부갈등($r=-.70, p<.001$), 양육스트레스($r=-.38, p<.001$), 아버지의 양육참여($r=.55, p<.001$), 유아의 수면습관($r=.20, p<.001$), 후속출산계획($r=.14, p<.001$)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부부갈등과 양육스트레스는 낮고,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높으며, 유아는 긍정적인 수면습관을 가지고, 후속출산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은 양육스트레스($r=-.44, p<.001$), 아버지의 양육참여($r=-.43, p<.001$), 유아의 수면습관($r=-.21, p<.001$), 후속출산계획($r=-.11, p<.001$)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고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는 낮으며 출산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아버지의 양육참여($r=-.25, p<.001$), 유아의 수면습관($r=-.34, p<.001$), 후속출산계획($r=-.11, p<.001$)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는 낮으며 유아는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어머니는 출산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유아의 수면습관($r=.14, p<.001$), 식습관($r=.11, p<.001$), 후속출산계획($r=.10, p<.001$)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높을수록 유아는 긍정적인 수면습관과 식습관을 형성하고, 부인은 후속 출산에 대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수면습관과 식습관은 어머니의 후속 출산계획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Min.	Max.	<i>M</i>	<i>SD</i>	<i>skewness</i>	<i>kurtosis</i>
사회경제적 배경(지위)	1.00	3.00	2.92	.26	-3.18	7.19
결혼만족도	1.00	5.00	3.65	.75	-.65	.73
부부갈등	1.00	4.63	2.19	.75	.51	.11
모양육스트레스	1.00	4.73	2.64	.66	.07	-.13
부양육참여도	1.00	5.00	3.55	.77	-.24	-.40
유아수면습관	1.00	2.00	1.84	.36	-1.90	1.62
유아식습관	1.40	5.00	3.25	.58	-.16	.34
후속출산계획	1.00	2.00	1.20	.40	1.46	.14

〈표 2〉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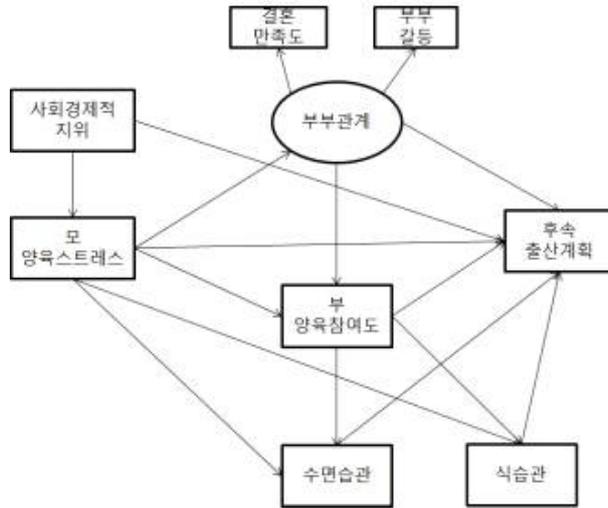
구분	결혼 만족도	부부갈등	모양육 스트레스	부양육 참여도	수면습관	식습관	후속출산 계획
SES	.03	.00	-.06	.01	.01	.07	.15**
가족 환경	결혼만족도	-.70***	-.38***	.55***	.20***	.06	.14**
변인	부부갈등		.44***	-.43***	-.21***	.01	-.11*
	모양육스트레스			-.25***	-.34***	-.02	-.09
	부양육참여도				.14**	.11*	.10*
유아 변인	아동수면습관					.05	.01
	식습관						.07

*** $p < .001$, ** $p < .01$, * $p < .05$

2. 구조모형의 적합도 검증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한자녀 가정의 후속출산을 설명하는 가설적 인과모형을 설정하였다(그림 1 참조). 이 모형은 가족 환경 변인 중 사회경제적 계층이 부부관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및 후속출산계획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부부관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후속출산계획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며, 유아의 기본생활습관이 후속출산계획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이 경험적 자료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검증한 결과, $\chi^2_{df=12}=24.60(p<.001)$ 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χ^2 은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많이 받아 동일한 모형이라도 표본의 크기에 기각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다른 적합도 지수와 함께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이 모형의 절대적 적합도 지수와 상대적 적합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TLI 값이 .92, CFI 값이 .98,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RMSEA 값이 .06로 나타나 양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택하기에 앞서,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수정모형)을 비교하였다. 수정모형은 선행연구의 기반이 약했던 한자녀 가정의 사회경제적 계층이 부부관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를 매개로 후속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친다는 경로를 수정한 것으로서, 한자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후속출산계획에 직접적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포함한다. 수정된 모형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수정모형

본 연구에서 수정된 모형이 경험적 자료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검증한 결과, $\chi^2_{df=11} = 24.64 (p < .001)$ 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유도를 고려한 χ^2/df 는 2로 모형이 표본 자료에 잘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수정 모형의 절대적 적합도 지수와 상대적 적합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TLI 값이 .94, CFI 값이 .98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RMSEA 값이 .05로 나타나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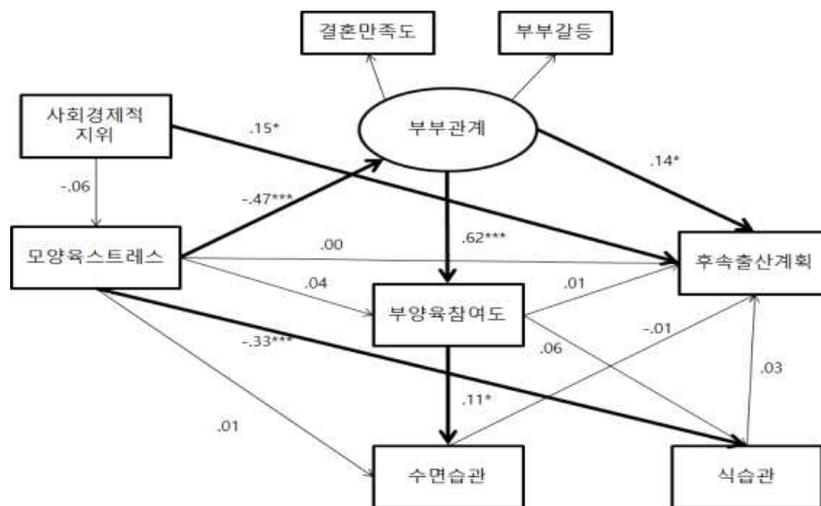
본 연구에서 초기에 설정한 연구모형과 수정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해보면 수정모형이 보다 간명하고 적절한 모형임을 알 수 있다(표 3 참조). 수정모형의 경우 절대적 적합도인 TLI, CFI가 1에 가깝고, RMSEA가 .05보다 작아 양호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두 모형 간 $\Delta\chi^2$ 를 살펴보면 연구모형과 수정모형은 자유도가 1차이일 때 χ^2 이 0.04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보다 간명한 모형인 수정모형을 선택하였다.

<표 3> 연구모형과 수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모형	χ^2	df	p	χ^2/df	TLI	CFI	RMSEA	$\Delta\chi^2$
연구모형	24.60	12	.00	2.05	.92	.98	.06	0.04
수정모형	24.64	11	.00	2.24	.94	.98	.05	-

한자녀 가정의 가족환경 변인과 유아의 기본생활습관이 어머니의 후속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알아보기 위해 최종 채택한 수정모형의 경로분석 결과는 [그림 3], <표 4>와 같다.

수정모형을 살펴보면, 사회경제적 계층과 어머니가 지각하는 부부관계는 후속출산 계획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후속출산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부부관계를 매개로 후속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아동의 식습관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는 유아의 수면습관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관계는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아버지의 역할참여를 매개로 유아의 수면습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기본생활습관(식습관, 수면습관)은 후속출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p < .001$, * $p < .05$

[그림 3] 최종 수정모형의 경로분석 결과

〈표 4〉 최종 수정모형의 경로계수

구분		unstandardized estimate	standardized estimate	S.E.	C.R.
사회경제적계층(지위)	→ 모양육스트레스	-.16	-.06	.12	-1.31
모양육스트레스	→ 부부관계	-.46	-.47***	.04	-9.57
모양육스트레스	→ 부양육참여도	.04	.03	.05	.76
부부관계	→ 부양육참여도	.71	.62***	.06	10.36
부양육참여도	→ 수면습관	.05	.11*	.02	2.28
모양육스트레스	→ 수면습관	.01	.01	.03	.26
부양육참여도	→ 식습관	.10	.14**	.03	2.89
모양육스트레스	→ 식습관	-.28	-.33***	.04	-6.88
수면습관	→ 후속출산	-.01	-.01	.05	-.21
모양육스트레스	→ 후속출산	.00	.00	.03	.04
부양육참여도	→ 후속출산	.00	.01	.03	.19
식습관	→ 후속출산	.02	.03	.03	.70
부부관계	→ 후속출산	.08	.14*	.04	1.99
사회경제적계층(지위)	→ 후속출산	.21	-.14*	.07	3.02

*** $p < .001$, ** $p < .01$, * $p < .05$

두 번째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한자녀 가정 어머니의 후속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환경 변인과 유아의 기본생활습관의 직간접 효과를 알아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부트스트랩 방식으로 효과성을 분해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부부관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후속출산계획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부부관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부관계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통해 유아의 수면습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계층과 부부관계는 어머니의 후속출산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한자녀 가정 어머니의 후속출산계획에 있어 사회경제적 계층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부부관계는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표 5〉 최종 수정모형의 효과분해

구분		standardized direct effect	standardized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사회경제적계층(지위)	→ 모양육스트레스	-.064	-	-.06
모양육스트레스	→ 부부관계	-.47***	-	-.47***

(표 5 계속)

구분			standardized direct effect	standardized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모양육스트레스	→	부양육참여도	.04	-.29***	-.25***
부부관계	→	부양육참여도	.62***	-	.62***
부양육참여도	→	수면습관	.11	-	.11
모양육스트레스	→	수면습관	.01	-.03	-.02
부부관계	→	수면습관	.00	.07	.07
부양육참여도	→	식습관	.06	-	.06
모양육스트레스	→	식습관	-.33***	-.01	-.34***
부부관계	→	식습관	.04	.00	.04
사회경제적 지위	→	후속출산	.14*		.14*
모양육스트레스	→	후속출산	.00	-.08*	-.08
부부관계	→	후속출산	.14*	.01	.15*
부양육참여도	→	후속출산	.01	.00	.01
식습관	→	후속출산	.03		.03
수면습관	→	후속출산	-.01		-.01

*** $p < .001$, * $p < .05$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자녀 가정의 후속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계층, 부부관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아버지의 양육참여 등의 가족환경 변인과 유아의 수면, 식습관 등 유아의 일상생활습관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자녀 가정의 가족환경 변인 및 유아의 기본생활습관과 어머니의 추후출산계획 간의 구조적 관계를 이론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분석한 결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양육스트레스, 부부관계,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매개로 추후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했던 연구모형보다는 사회경제적 계층이 직접적으로만 추후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한 수정모형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정모형의 경로분석 결과 나타난 결과를 간략하게 제시하고, 이에 따른 내용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한자녀 가정의 사회경제적 계층은 후속출산계획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양육을 위한 가계소득의 부담을 고려했을 때, 후속출산계획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인임에는 분명하다. 저출산의 원인에서 고용불안, 경제적 불안 등으로 결혼과 가족구성이 늦어지고 이에 따라 출산율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사회경제적 계층은 후속출산에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류연규, 2005). 한자녀 가정의 후속출산을 높이기 위해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각 가정 가계 경제적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 부부의 직업적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책이 고려되어야 한다(이진화 외, 2012). 전문직으로 소득이 높은 경우와 단순직이며 비정규직형태로 소득이 낮은 경우 등을 감안하여 양육수당, 누리지원금, 탄력근무제, 여성 경력단절에 대한 지원 등과 같은 직간접적인 지원안을 마련하여 가계 경제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는 후속출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한나와 이명석(2013)은 기혼 직장여성의 출산의도를 분석하면서 남편의 가사노동분담은 후속출산에 영향을 주지만, 자녀돌봄분담이 후속출산에 영향을 주지 않아서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Park(2012)은 남편이 가사분담과 자녀돌봄참여하는 것이 후속출산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고, 김종훈 외(2013)은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가 둘째아 출산에 직간접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가진다고 하였으며, 서미정(2011)과 강은미와 김승규(2011)는 남편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추가 자녀 출산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남편의 양육참여는 결혼만족도, 부부갈등으로 나타나는 부부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후속출산계획과도 관련이 있다(고광만·김소아, 2014)는 제안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의 부부관계가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통해 원만한 부부관계는 부의 양육참여를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후속출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또한 후속출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자녀출산계획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송영주 외, 2011)는 연구결과와는 다소 다른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연령에 따른 차이에서 비롯될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유아가 성장해감에 따라 기본적인 것들을 유아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하게 되어 부모가 느끼는 양육스트레스가 줄어들 수 있고, 이로 인해 양육에 대한 부담감 자체가 출산계획을 저해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될 가능성이 낮아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 모형에서 양육스트레스는 부부관계를 통해 후속출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아의 기본생활습관은 후속출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수면, 식습관 등의 일상생활이 습관화되어 나타나는 것이 기본생활습관

이다. 유아의 기본생활습관은 주양육자인 어머니의 영향과 유아의 기질 등 다양한 변인에 의해서 형성된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특히 유아의 식습관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녀의 기본생활습관이 어머니의 양육과도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이미숙·이영애, 2014)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처럼 자녀의 일상적인 습관은 부모에 의해 형성되지만 또한 부모의 양육에 대한 자신감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러한 낮은 자신감이 후속출산과 관련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기본생활습관이 후속출산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보다 세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한자녀 가정 어머니의 후속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환경 변인과 유아의 기본생활습관의 직간접 효과를 알아본 결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부부관계를 매개로 후속출산계획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자녀 가정의 후속출산계획에 있어 부부관계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것이다. 특히 부부관계는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부부 간에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긍정적인 부부관계는 부부 간의 신뢰와 긍정적 의사소통을 통해 증진될 수 있다. 교육을 통해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심리와 부부 간 의사소통을 도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줌으로써 부부 간의 친밀성을 높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긍정적 부부관계는 가족 내 성역할 평등을 기반으로 유지될 수 있다(박수미, 2008). 우리나라의 경우 여전히 가족 내 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편이다. 육아와 가사분담은 여성의 책임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의 어머니들은 어려움을 호소한다. 가족 내 성역할 평등은 남편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제도적으로 사회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다. 일례로, Duvander, Lappegård와 Andersson(2010)은 여성과 남성의 효율적인 육아휴직은 후속출산에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처럼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일과 가정 병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며(Wong, Tang, & Ye, 2010), 이의 효과적인 실천은 궁극적으로 결혼만족도를 높이고 부부갈등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종합해서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겠다. 우선 한자녀를 둔 가정의 부부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한자녀 가정의 후속출산계획을 설명하는 모형에서 사회경제적 지위, 모의 양육스트레스, 부부관계가 유의미한 검증 변인임을 알 수 있었고, 특히 결혼만족도, 부부

갈등과 같은 부부관계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실질적으로 후속출산에 있어서는 유아의 개인적 특성보다는 가족 환경의 특성이 보다 더 중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자녀 가정의 후속출산계획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기업의 수를 확대시키고,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양성평등적 부부 관계형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서로 소통하고 친밀한 부부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다.

지금까지 논의를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자면, 우선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에서 제공한 자료를 분석하였는데, 아동패널에서 유아기 자녀를 둔 한 자녀 가정의 약 92%가 사회경제적 배경이 일반계층으로 사회경제적 배경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영향력의 의미를 분석하기에는 용이하지 않아서 본 연구에서는 다른 선행연구와는 달리 사회경제적 배경이 유의미한 변인으로 작용하지 못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차후 연구에서는 보다 사회경제적 배경을 세분화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출산계획을 ‘없다’, ‘모르겠다’를 1점, ‘있다’를 2점으로 처리하여 출산계획의 확신 정도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없다’와 ‘모르겠다’는 불확신의 척도로, ‘있다’는 확신의 척도로 사용하였지만 ‘없다’와 ‘모르겠다’는 완벽하게 동일한 의미가 아님을 고려해야 한다. 추후 연구에서는 출산계획의 의지나 확신 정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함으로써 출산계획에 대한 보다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일상생활 즉 기본생활습관이 후속출산에 미치는 영향력이 의미 있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유아의 기본생활습관은 부모-자녀관계, 유아의 기질 및 발달적 특성 등 여러 요인들이 결합되어 형성되어 유아를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특성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추후연구에서는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유아의 영아기 기질의 초기치와 이후 변화치,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초기치와 변화치가 유아의 기본생활습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러한 유아의 개인적 특성과 부모의 특성이 후속출산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강란혜(2000). 아버지 역할수행의 결정요인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8(6), 15-28.
- 강은미·김승규(2011).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양육스트레스와 보육서비스만족도가 추가자녀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 **육아지원연구**, 6(1), 67-88.

- 고광만·김소아(2014). 사회적 지원, 일-가족 양립 정책 및 부부특성이 후속출산의도 및 기대자녀수에 미치는 경로탐색.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8(4), 35-51.
- 고정숙·김갑숙(2000). 가족적응성, 응집성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8(10), 1-14.
- 권지성(2013). 저소득층이 경험하는 행복의 맥락, **한국사회복지학**, 65(2), 53-78.
- 권혜진(2010). 영유아기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아버지 역할만족도와 역할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자녀와의 친밀감의 매개효과 탐색. **한국보육학회지**, 10(4), 87-106.
- 김미숙·민시인(2012).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유아의 일상생활습관과의 관계에서 어머니 일상생활습관의 매개효과. **한국영유아보육학**, 72, 263-279.
- 김미정·정계숙·박희경(2011). 20-30대 유자녀 모의심리적·사회적 요인이 기대자녀수에 미치는 영향. **생태유아교육연구**, 10(4), 1-18.
- 김정원·김유정(2007). 영유아기 자녀를 둔 우리나라 아버지 관련 연구 경향 분석: 1980년 이후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5(5), 25-38.
- 김종훈·양소영·성지현(2013).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와 사회적 지원이 후속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매개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34(1), 87-102.
- 김형준(2008). 한국과 프랑스의 출산장려 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부모권과 노동권을 중심으로. **동북아연구**, 23(1), 111-134.
- 김홍배·최준석·오동훈(2008). 여성의 출산율 결정요인과 출산장려정책의 방향. **지역연구**, 24(1), 23-37.
- 남정은·정정희(2013). 자녀양육 양상을 통해 본 저출산 문제의 이해 - 1980년대 중반~2000년대 신문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33(2), 53-78.
- 류연규(2005). 복지국가의 아동양육지원 제도가 출산율에 미친 영향에 대한 비교연구. **사회보장연구**, 21(3), 233-261.
- 박수미(2008). 둘째 출산 계획의 결정요인과 가족 내 성 형평성. **한국인구학**, 31(1), 55-74.
- 서미정(2011). 부모의 심리사회적 특성이 후속 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 유자녀 가구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 5(1), 127-148.
- 송영주·이주옥·김춘경(2011).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후속출산계획 관련 심리사회적 요인 탐색. **열린유아교육연구**, 16(3), 185-206.
- 신경아(2010). 저출산대책의 쟁점과 딜레마. **페미니즘연구**, 10(1), 89-122.
- 신혜원·최평섭·김의준(2009). 서울시 추가자녀 출산계획에 미치는 가구 특성의 요인분

- 석. **서울도시연구**, 10(2), 33-47.
- 염명배·김경미.(2011). 군집분석을 통한 저출산 원인 및 정책수요 도출. **경제연구**, 29(1), 163-190.
- 이기숙·손수연(2012). 한국·중국·일본·대만 유아의 일상생활 비교. **유아교육연구**, 32(2), 49-71.
- 이기숙·정미라·김현정(2006). 한국, 중국, 일본 유아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5), 81-98.
- 이미란(2010). 기혼 여성이 처한 환경적 요인이 자녀에 대한 가치관과 출산 행태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5(1), 99-121.
- 이미숙·이영애(201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기본생활습관 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유아교육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
- 이정원(2009). 유아녀 취업여성의 후속출산 의도 결정: 경로분석-가치관적 요인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0(1), 323-351.
- 이진화·조하나·최혜운(2012). 모의 후속출산계획에서 한자녀 취업모의 일반적 변인에 따른 차이와 부모됨이 미치는 영향. **육아정책연구**, 6(1), 125-141.
- 임현주(2013). 인구·사회학적 변인, 경제변인, 양육·출산변인에 따른 후속출산계획 연구. **유아교육연구**, 33(3), 35-58.
- 임현주·이대균(2013). 가구의 월소득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변인과 자녀의 기본생활습관 및 어머니의 양육방식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8(5), 1-22.
- 임현주·이대균·최향준(2011). 친지의 사회적 지원, 부모특성, 어머니 심리적 특성이 후속출산계획에 미치는 변인탐색. **유아교육연구**, 31(6), 167-189.
- 장한나·이명석(2013). 기혼 직장여성의 출산의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1(4), 425-438.
- 정미라·홍소영·박수경(2013). 첫 자녀를 둔 가구의 후속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탐색. **유아교육연구**, 33(1), 259-277.
- 정성호(2010). 저출산 요인의 인과모형. **사회과학연구**, 49(1), 69-90.
- 조은영(2013). 부모의 양육행동과 만 3, 4세 유아의 기본생활습관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차승은(2008). 부모역할의 보상/비용과 둘째 자녀 출산계획. **사회복지정책**, 33(6), 111-134.
- 최향준(2015). 취업모의 심리변인, 사회적 지원변인, 경제변인 및 자녀(영아)의 기질변인이 후속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93, 89-114.

- 현경자·박선영(2012). 경제적 압박과 저소득층 부부의 친밀성: 남편과부인의 관점의 다각화와 갈등반응행동의 기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3), 385-411.
- Anthony, L. G., Anthony, B. G., Glanville, D. N., Naiman, D. Q., Waanders, C., & Shaffer, S. (2005).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ing stress, parenting behaviour and preschoolers' social competence and behaviour problems in the classroom.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4(2), 133 - 154.
- Duvander, A. Lappegård, T., & Andersson, G. (2010). Family policy and fertility: fathers' and mothers' use of parental leave and continued childbearing in Norway and Sweden.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20(1), 45-57.
- Feldman, R. (2000). Parents' convergence on sharing and marital satisfaction, father involvement, and parent-child relationship at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21(3), 176-191.
- Harris, K. M., & Morgan, S. P. (1991). Fathers, Sons, and Daughters: Differential Paternal Involvement in Parenting,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3(3), pp. 531-544
- Kaczynski, K. J., Lindahl K. M., Malik, N. M. & Laurenceau, J. P. (2006). Marital conflict, maternal and paternal parenting, and child adjustment: A test of mediation.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0. 199-208.
- Lamb, M. E. (2004).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4th edn)*. New Jersey: Wiley
- Lee, M. J., Kim, K. H. & Lee, J. Y.(2012). A longitudinal study on moderating variables for following childbirth intention.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and Care*, 12(2), 265-286.
- Matysiak, A.(2009). Employment first, then childbearing: women's strategy in post-socialist Poland. *Population Studies*, 63(3), 253-276.
- Park, S.(2012). Social networks and second childbirth intentions of Korean married women. *Journal of Reproductive and Infant Psychology*, 30(4), 398-412.
- Wong, C., Tang, K., & Ye, S.(2010). The perceived importance of family-friendly policies to childbirth decision among Hong Kong women.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20(4), 381-392.

·논문접수 9월 21일 / 수정본 접수 11월 27일 / 게재 승인 12월 15일

·교신저자: 김경은,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부교수, 이메일 leejay48@chol.net

Abstract

Family and Child factors affecting the second childbirth plan in one child family: focus on the family environments and children's daily habits

JinWha Lee, KyoungEun Kim and Wonshin Lim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family environments(socioeconomic status, marital relationships, mother's parenting stress, father's involvement in parenting) and children's sleeping and eating habit on planning for a second childbirth in one-child family. For this purpose, we created a structural equation model and examined the goodness of fit of the model using the χ^2 , TLI, NFI and RMSEA. The study used the data of 429 one-child families(between 0 and 5 years) taken from 2012 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PSKC) by the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KICCE).

The analysis showed that first, socioeconomic status and marital relationship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planning for a second childbirth. Second, mother's parenting stress had a significant indirect effect on planning for a second childbirth through the marital relationships. Based on the results, some implications were discussed to support family economic status and to reduce parenting stress.

Key words: family environments, children's daily habits, second childbirth